

해마다 안암동 아기능에선 노래 잔치가 열린다. 이름하여 “올날 웨스티발”

학생들이 스스로 꾸미고, 표를 팔고, 뒷 정리까지 하는 모임이라 쌍쌍이 모여 손뼉치고 노래하는 것 뿐인데 해가 갈수록 성황을 이루고 있다.

통기타만 보던 눈에는 전자장비(?)에 가까운 요란스런 상자들을 늘어놓고 마이크와 전선으로 이리저리 휘잡을 하고 무대를 울긋불긋 치장하고 사회자도 웃기는 전문가를 엄선한다. 학생중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비슷한 또래의 “프로”를 특별히 초빙한다.

올날이 기다려지는 젊은이들이야 신이나서 외치고, 손뼉치고, 어깨춤, 엉덩이춤이 절로 난다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갈날이 기다려지는 교수들이야 이걸 음악이라고 즐기나 하는 느낌과 내 아들 딸들이 대개 이렇게 지내는가 보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뒷전을 맴돌다 만다.

하기는 어른들이란 아이들이 자랄 때 정서함양과 지능개발에 너무 무심하게 마련이다. 살다보니 엄마가 있는데 나까지 뭘…… 등등으로 핑계는 몇 대어 보지만, 우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그들과 말도 나뉘고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사들고 들어가는 장난감의 안전도를 문제삼고 영양가다 보약이다 그들의 몸 건강엔 유념하게 되어도, 정신건강과 마음씨 건강에 대해선 솔직히 다들 별로 한일이 많지 않은 가장들 아니겠는가. 일요일날 놀러갈 여유 없을 때 아이들과 함께 보는 종이 만화전, 텔레비전 만화전간에 일본것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이고 방학이자할 때쯤 나타나는 만화영화도 국적불명의 채색 보세업자들 제품이 반쯤 되는데 현실이다.

어디 그뿐이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교과서를 들여다 보면 역시 일본 교과서의 번역판 아닌가 실개 비슷비슷하다. 하기가 과학이란게 만

국 공통의 진리만 모아 놓은 것이니 같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구성 방법이 비슷한 것은 아마 문교부에서 내려오는 교과서 집필 지침이 일본의 그것과 비슷해서 아닌가 싶다. 이렇듯 학제부터 분위기까지 일본을 매우 비슷하게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세상인데도 민족성, 사회구조, 국력의 상황의 차이 때문에 끝에 가서 보면 꼭 일본인 답지만은 않은 어른들로 커버리는 것 같다. 그럴수록 기성인들이 깨달아야 할 일로 지금의 교육,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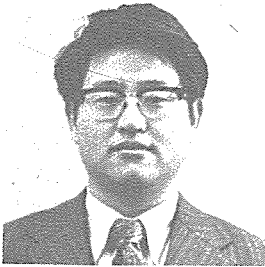
문화, 경제, 정치가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결정 짓고 특히 지금의 우리들 한마디, 한결음이 자라나는 세대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구한말과 약간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북쪽은 소련과 중공의 영향에서 못 벗어나고 남쪽의 외채는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이 나누어 맡은 입장에서 자손들이 후세에 역사에 무엇이라 쓸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의세의 균형과 국

내의 안정도 중요하고 경제발전도 시급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속에 쫓대있는 정신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바로 자리잡혀 있느냐가 더 중요할것 같다.

10억짜리 예배당, 100억짜리 교회가 영동에 건립된다는 소식에 기독교가 서구화의 물결을 타고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뒷 받침하에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분단 몇십년 후에 통일이 될지 몰라도 그 때에 가서 어떠한 기여와 방해로 하게 될지 잘 알



崔 東 植
〈高麗大 化學科 教授〉

수는 없어도 먼 훗날에 대한 배려를 사회과학적 고찰로 했으면 싶다.

범 세계적인 추세로서 전자공업이 특히 OA (Office Automatic) 쪽의 눈부신 발전으로 앞으로 국가간 국력의 차이는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나라 아이들 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기계조작, 논리게임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화한 장난감의 보급, 전자 놀이터의 마련, 정보 처리기구의 입력 장치로써의 글쇠 (Key) 익히는

습관은 어려서부터 길러 주어야만 한다.

앞으로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 원망스런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를 올려놓지 않게 하려면 배달겨레의 자랑스런 한글문화를 현대 개념에 맞추어 미래 지향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

한글기계화, 한글사무 자동화, 한글 정보처리 등 한글을 가진 나라답게 정보산업 육성에 힘을 다하는 것이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럴듯해 보인다.

예비군도 창설되었고 민방위도 자리 잡았으니 이제 문화군도 창립하여 문화창달에 힘을 쏟을 때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중공의 홍위병 따위가 저지르는 문화퇴보가 아닌, 우리 겨레를 위해 올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문화혁신의 큰 일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정신문화원이 기초조사를 했고 신념있는 사람들이 시행착오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책임지고 교육계와 문화계의 몇가지 일을 감행했으면 지금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확연히 밝혀져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중에 귀우침 없는 갈날을 맞기 위해서도, 올날 기다리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걱정하는 자세라도 남기려면, 문화군의 창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보람있는 일인데 나중에까지 몇몇하며 그럴사한 일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농촌과 어촌에서는 잘 된다는 새마을 운동이 도시에서 유독 성과가 적은 오늘날 이제는 새로운 발돋움으로 문화혁신이 시작되어야만 한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려면』

